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WSJ,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9월 미 해고 줄었지만 신규 채용은 16년 만에 최저
- WSJ: 연방재무장관,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 약화 우려"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셧다운에 따른 경제 자료 부족에 연준 위원들 어려움"
- Reuters: 댈러스 연준 총재,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해야"

[미국 금융]

- Bloomberg: 셧다운으로 달러 4일째 연속 하락
- Bloomberg: 금값 6일째 상승세... 셧다운과 금리 인하 예상 탓

[트럼프 관세]

- Bloomberg: 미 재무장관, 미중 무역 회담 '큰 돌파구' 예상
- WSJ: 최근 트럼프 관세 현재 상황은?

[조지아 사태]

- Bloomberg: LG에너지, 한국 배터리 근로자 미국 복귀 시작

[자동차]

- Bloomberg: 자동차사들, 연방 보조금 끝난 후에도 전기차 할인 7,500달러 연장

[오일]

- WSJ: 유가 상승...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Finance: 메타, AI 광고로의 전환 '불가피하다'
- Bloomberg: 테슬라, 판매량 급증 기록... 세액 공제 종료 전 소비자들 구매 서둘러

[미국 경제]

Reuters: US layoffs fall in September but year-to-date planned hiring at lowest in 16 years

9월 미 해고 줄었지만 신규 채용은 16년만에 최저

- 미 고용주들은 9월에 해고를 줄였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고용 계획은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련 기업 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밝혔다.
- 구체적으로 9월 들어 정리 해고 계획은 월간 비교로 37% 줄어든 5만4천64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94만6천4백26건 일자리가 줄어 지난 20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는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정책과 기술 변화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관련 부처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이번주 금요일의 고용 보고서, 이번주의 주간 신규 실업청구 건수, 그리고 8월의 제조 주문 등의 발표가 지연될 예정이다. 무역수지 보고서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Reuters 기사

WSJ: Bessent Warns Government Shutdown Could Weaken Economy 연방재무장관,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 약화 우려”

- 연방 재무장관 Scott Bessent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점차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GDP에 여파를 주고 성장에 여파를 주고 미 근로자들에게 여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며 민주당이 메디케이드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한편 그는 행정부는 중국의 구매 축소로 피해를 받고 있는 미 농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Goolsbee Says Lack of Data During Shutdown Is ‘Problematic’ for Central Bankers 시카고 연준 총재, “셧다운에 따른 경제 자료 부족에 연준 위원들 어려움”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관련 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아 연준 관계자들이 경제를 진단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 상승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했는데 서비스 인플레 상승은 관세 여파를 가장 덜 받는 분야인데 이의 상승은 물가 지속 압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한 노동시장 자료는 비정부 자료들도 많지만 물가 지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연방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예정일은 15일이며, 연준의 금리 정책 관련 정례 회의는 28일부터 이틀 간이다.

Bloomberg 기사

Reuters: Fed's Logan says US central bank must be 'very cautious' on rate cuts 달러스 연준 총재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해야”

- 달러스 연준 총재인 Lorie Logan는 오늘 목요일 지난달에 연준이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에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적절히 했지만 추가 금리 하락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가 연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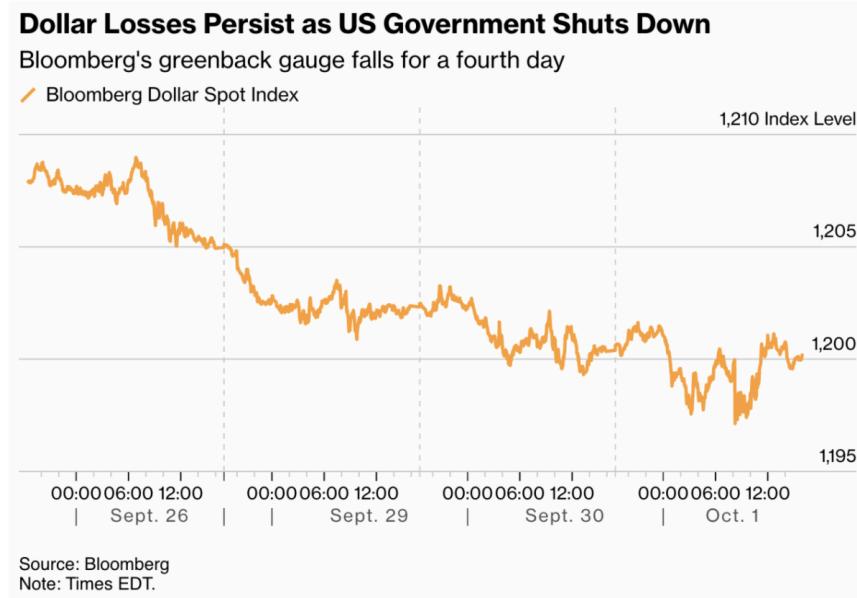
- 그는 “이제부터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하며 정책을 적절히 조정해서 지나치게 완화적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방향을 다시 바꿔 물가 안정을 회복시키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uters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US Government Shutdown Pushes Dollar Lower for Fourth Day**

셧다운으로 달러 4일째 연속 하락

- 7년만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민간 일자리 성장이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미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
-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4일째 하락해 한달 기간으로는 가장 길게 하락했는데 엔화는 2주째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채는 장단기물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 앞으로 셧다운이 계속되면 달러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올해 들어 지난 2022년 이래 가장 낮게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이는 예상하기 힘든 정책 결정과 연준의 불확실한 독립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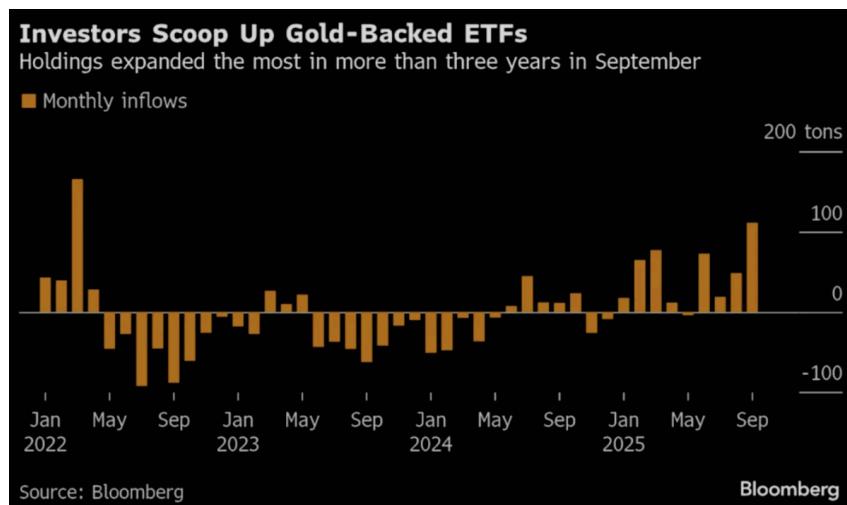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Rallies for Sixth Day on US Rate Bets and Shutdown Concerns

금값 6일째 상승세... 셧다운과 금리 인하 예상 탓

- 금값이 6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록적인 수준이다. 이는 정부 셧다운에다 트레이더들이 노동시장 약화 발표에 따른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은 현재 온스당 3천8백80불을 기록해 어제 최고치에서 15달러 밀돌고 있다.

- 현재 트레이더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연방 셧다운으로 관련 부처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어제 발표된 ADP의 일자리 보고서 등 비정부 기관의 자료를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Bloomberg: Bessent Sees a 'Big Breakthrough' Coming on China Trade Talks

미 재무장관, 미중 무역 회담 ‘큰 돌파구’ 예상

- 미 행정부는 중국산 구매 감소에 따른 미 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에 착수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다음 라운드의 미중 무역회담에서 상당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는 “앞으로 가장 큰 일은 이달 하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행사에서 트럼프와 시진핑간의 단독 회담”이라며 “현재 내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부총리와의 5번째 회담에서도 상당히 큰 돌파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중국은 현재 협상 레버리지로 희토류는 물론 미국으로 부터의 대두 콩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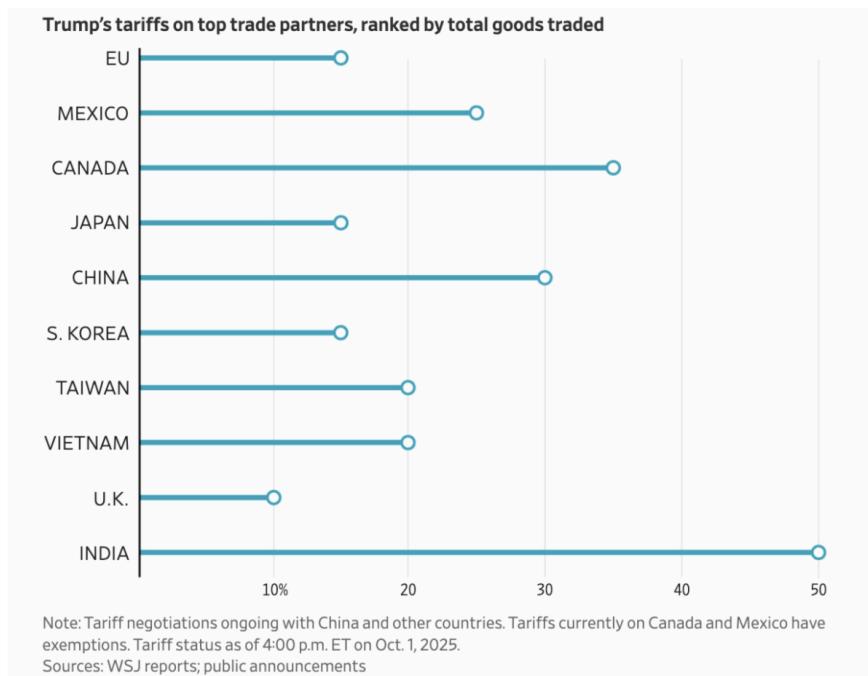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What to Know About Trump's Latest Tariffs

최근 트럼프 관세 현재 상황은?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 최근에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가구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영화 수입에 100% 관세 부과를 재천명했다. 영화는 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세가 적용될지 불분명하다.
- 그 같은 관세들이 미국의 관련 생산을 크게 촉진할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무역상대국과는 관세 합의로 평균 15%가 부과되고 있지만 중국, 인도, 타이완 등과는 협상 중이다.
- 대법원의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은 올해 말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국가별 미국과 무역 규모와 관세 현황은 원본 참조.



WSJ 기사

[조지아 사태]

Bloomberg: LG Energy to Start Sending Korean Battery Workers Back to the US LG에너지, 한국 배터리 근로자 미국 복귀 시작

- LG에너지가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다시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다음 주말에 끝나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재개된다.
- 성명서는 “B-1 비자와 ESTA 소지자가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화요일에 진행된 회담에 따르면, 두 나라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한국 투자자 데스크를 개설해 고용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 LG에너지는 또한 비자 문제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 대응 담당자 및 외부 변호사 지원 등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Bloomberg: Automakers Extend \$7,500 EV Discount After Federal Subsidy Expires

자동차사들, 연방 보조금 끝난 후에도 전기차 할인 7,500달러 연장

- GM, 현대 등 일부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특정 전기차 모델에 대해 할인을 연장할 예정이다.
- GM, 포드, 지프의 모회사인 Stellantis는 운송 중이거나 매장에 있는 리스 차량에 대해 7,500달러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는 2025년형 아이오닉에 7,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형 모델의 경우 최대 9,800달러까지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전했다.
- 한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 차량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비용으로 인해 이미 수익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오늘]

WSJ: Oil Edges Higher Amid Geopolitical Concerns, Oversupply Prospects

유가 상승...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3일 연속 하락 후 각각 0.2% 상승해 배럴당 65.51달러와 61.92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소재의 정유소, 파이프라인,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인 것이 전해지며 지정학적 우려가 커진 것이다.
- 또한, OPEC+ 산유국들이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추가 증산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원유 재고는 3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고, 휘발유 재고는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수요 약세를 시사한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YahooFinance: Meta unveils the inevitable turn to AI advertising 메타, AI 광고로의 전환 '불가피하다'

- 메타가 AI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진 광고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 이들은 12월부터 사람들의 AI 상호작용을 활용해 콘텐츠 및 광고 추천을 개인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메타는 그간 소셜 미디어에서 AI를 수익화 하는 데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내왔는데, AI 챗봇이 검색 엔진을 능가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메타 AI와 등산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등산화 광고를 받고, 등산 동호회 추천을 받으며, 등산에 간 친구들의 사진도 보여줄 예정이다.
- 그러나, 종교, 정치, 건강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메타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Tesla Sales Surge to Record on Rush to Snag US Tax Credit 테슬라, 판매량 급증 기록...세액 공제 종료 전 소비자들 구매 서둘러

- 연방 세액 공제가 종료되기 전에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구매를 서두르면서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했다.
-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497,099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이다.
-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량은 481,166대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이나, 모델 X, 모델 S, 사이버트럭 등 다른 차량의 판매량은 30% 감소했다.
- 한편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로 3분기 매출 중 일부는 증가했으나, 연말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일론 머스크는 이에 관해 “세액 공제가 종료되고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힘든 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